

코로나 팬데믹 속 경남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성황리 폐막



1 관람객이 산삼주제관에서 '천종삼'을 보고 있다.
2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유공 감사패 수상 모습
3 산삼 향노화 관련 국내 전문가들이 학술회의에서 열린 토론을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탓에 1년 연기됐던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가 지난 9월 10일부터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에서 31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엑스포는 산삼의 가치와 더불어 향노화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시관과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학술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 산삼의 학문적 접근과 성분, 효능 등 실리적 가치를 전시에 담았고, 실제 산양삼 재배 정보를 공유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산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했다.

산삼과 향노화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을 공유한 학술행사에서는 국내 저명 학회를 비롯해 협회, 기관, 생산자, 가공기업 등 산삼 향노화 관련 국내 전문가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 4개국에서 초청된 해외 유명 석학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석했다. 실시간 온라인 학술회의에는 1천 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다.

산업교류관은 산삼 가공품부터 향노화 관련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뷰티, 헬스케어, 바이오·제약, 원료 기술까지 6개 분야에 110개 국내기업이 입점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등 36개 국가와 8차례 온라인 상담회를 진행했다. 수출 상담금액은 1천747만 달러로 당초 목표였던 500만 달러를 배 이상 초과 달성했다.

비대면 콘텐츠를 강화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이번 엑스포의

온라인 방문 관객 수는 230만 명(엑스포 공식 사이트 48만 명, 라이브커머스 26만 명, 라이브쇼 10만 명, 유튜브 146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국민을 상대로 산양삼에 대한 인식을 널리 개선하고 경남 함양이 건강과 힐링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한 행사였다.

엑스포 관계자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열린 함양산삼향노화 엑스포는 집단 감염이나 지역 확산 없이 44만여 명 관람객이 방문해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❶



자연이 아름다운 산삼향노화엑스포



Good Morning JIRISAN, Hamyang
굿모닝 지리산, 함양